[4] 直腸와 건강看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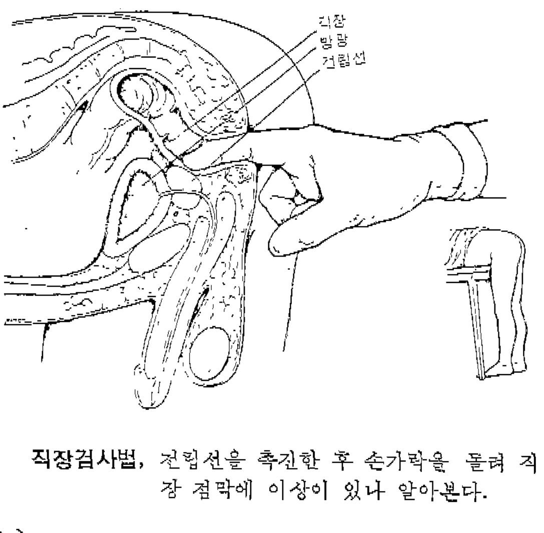
〈본회 출판부〉

Brunner, Textbook of Medical-Surgical Nursing
J.B. Lippincott Company, 1975.

직장검사는 매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신체검사에 포함시켜야 하며, 특히 40세 이상 환자에 있어서는 꼭 시행해야 하는 검사이다. 직장검사시 환자에게 불편을 덜 주며, 검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입원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는 왼쪽 옆으로 누워 오른쪽 무릎을 가슴에 끌어 당겨 붙인 자세를 취하게 하며, 외래 진찰실에서 검사를 해야 할 경우는 허리를 구부려 진찰대 위에 가슴을 댄 자세를 취하게 하며, 여자 환자의 경우는 골반강 검사 때와 마찬가지로 무릎과 머리를 구부리고 발을 높이 올리는 쇄석위(dorsolithotomy position)를 취하도록 한다.

항문관 검사(Anal canal Examination) : 검사자는 우선 항문주위에 외치질(external examination)이나 치열(anal fissures), 치루(anal fistula) 등이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 그후 왼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둘째 손가락에 윤활유를 바른 다음 항문관을 따라 서서히 손가락을 삽입하면서, 항문괄약근의 긴장력이 정상인지, 내치질(internal Hemorrhoid)이 있는지 등을 살핀다. 손가락을 뺀후, 고무장갑에 묻은 변이나 점액을 긁어내어 검사물을 체취한다.

전립선 검사(Prostate Examination) : 전립선은 방광 경부 및 요도를 둘러싼 기관으로 2개의 측엽과 1개의 중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에 움푹 들어간 봉선(raphe)이 있고, 직장벽의 腹面(ventral surface)에서 만져진다. 전립선의 양측에 위치한 직장의 점막에서는 주름이 없음으로 검사시 손가락을 쉽게 밀어 넣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전립선 주위에 응어리가 있는지 용종(polyp)이 있는지를 쉽게 촉지할 수 있는데, 대변이 있는 경우는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배변을 시킨후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 전립선 안에 있는 단단한 응어리는 대개 악성종양을 의미한다.



직장검사법, 전립선을 촉진한 후 손가락을 돌려 직장 점막에 이상이 있나 알아본다.